

“한 분이라도 더” 거동 불편 어르신 업고 ‘총총’

최현동 담양군의원 순선수범 모습 포착 주민들 박수...“현장에 답” 곳곳 발품 애로사항 청취 불편 해소·제도 개선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군민 한 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등에 업고 이동하는 군의원의 모습이 포착돼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해당 군의원은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최현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사문학면·고서면·대덕면·장평면)이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실마을경로당에서 열린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 몸이 불편해 참여하지 못한 80대 어르신을 등에 업고 행사장으로 움직였다.

이 모습이 지역민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까운 이웃 같은 군의원’이라는 칭찬이 이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이게 진짜 봉사”라며 박수를 보냈다.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최현동 담양군의원이 지난 10일 가사문학면 지실마을경로당에서 열린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 몸이 불편해 참여하지 못한 80대 어르신을 등에 업고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 주민은 “봉사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몸이 밴다는 걸 느꼈다”며 “평소에도 묵묵히 봉사해 온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역에서 봉사하는 군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관심을 가

져주니 송구하다”며 “군수와 군민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평소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식 일정 없는 날이면 어김

없이 지역 주민이 있는 현장으로 향한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딸기 영농현장을 찾아 산별 작업을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사업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핀다.

특히 원예시설 손해보장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농업회사, 농협,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끈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백진공원과 고서생활체육공원 등지의 운동 인프라를 개선한 것 역시 주말마다 직접 동호인들과 호흡하며 불편을 파악한 결과다.

지난 2월 장평면에 개소한 최 의원의 지역사무소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생활민원을 상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다.

최현동 의원은 “7년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20결례의 운동화를 닦도록 신었고 지금은 47결례”라며 “매일 오전 5시30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지역 곳곳을 누빈다. 일요일엔 우시장, 주말·평일엔 운동장 등지에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앞으로도 항상 발로 뛰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진기자·담양=정승균기자

김보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박사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3일 “김보람(사진) 천연소재 연구부 박사가 최근 개최된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 논문 중 창의성과 학술적 기여도가 뛰어난 연구를 선정, 시상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김 박사의 수상 논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지원 선진화 사업과 도시·연안 천연물 확보 및 정보 생산 사업을 연계해 수행한 연구로, 한국지질식물학회지에 ‘알코올로 유도된 간 손상 모델 HepG2/2E1 세포에서 오리나무 잎 추출물의 간 보호 효과’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도입된 인간 간세포주를 활용해 간 손상을 유도한 후 오리나무 잎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대조군인 실마리과 유사한 간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김보람 박사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연안의 유용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질한 개선과 기능성 소재의 고 품질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장성경찰,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장성경찰서는 “최근 황룡면 자율방범대 등 20여명과 함께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스레기 무단 투기 ▲광고를 무단 부착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은 “일상생활의 무질서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초질서 준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경찰, 치안센터 야간시간 운영

담양경찰서는 13일 “근무자 미배치로 지난달 2일부터 비어있던 치안센터에 야간시간대 및 휴일에 근무자를 지정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경찰서는 경찰서 내근 근무자를 평일 오후 6-10시,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안센터 근무를 지정해 방문민원 응대, 마을 순찰 통한 범죄 예방, 애로사항 청취 등 경찰관이 없는 ‘빈 치안센터’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인력이 확보되는대로 치안센터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근무자를 지정해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부음

▲이제모씨 별세, 조기철(전 전남매일 편집국장)씨 모친상=발인 15일(화) 오전 7시30분 광주 천지장제사장 501호 (062-527-1000).

▲이영훈씨 별세, 김재현(KBC광주방송기자)씨 장인상=발인 16일(수) 오전 7시30분 광주 만평장제사장 201호 (062-611-0000).



조인철 의원, 누구나 동행 아카데미서 특강

누구나 동행 아카데미(사무총장 조승환)는 지난 12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을 초청해 ‘광주 그리고 AI’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광주 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AI 산업의 정책 방향,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 AI 안보 등

을 주제로 지역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꾸러졌다.

AI 분야에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조 의원은 “AI는 서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라며 “기술 혁신과 지역 특화 전략을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주성학기자



김영록 지사, 인구의 날 맞아 장흥 7남매 가정 격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제14회 인구의 날을 맞아 장흥의 다둥이 가정을 방문, 축하하고 격려하며 ‘아이부터 어른, 외국인 모두가 살기 좋은 전남’ 실현 정책을 의지를 다졌다.

방문 가정은 지난 4월 일곱째 여아가 태어나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줬다.

김 지사는 ‘인구의 날 기념’ 인구활력 회복 분야 전남지사 표창을 7남매 아버지에게 수여했

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하는 영유아 친환경농산물꾸러미(친환경농업)와 전남도립도서관의 첫 책 선물(아이 그림책 2권과 유아책 1권)을 출산 가정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에서 시작한 출생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서머힐지역아동센터 NIE 2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된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11일 광주 북구 서머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NIE(신문활용교육) 2차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배웠다.

교육에 참여한 박시원(효동초 2)·이승현(효동초 2)·나소희(효동초 1) 학생은 신문 만들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아이들의 진지한 태도는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미디



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한편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을 공모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장흥경찰, ‘맨발 배회 아동 귀가’ 시민에 공로상

장흥경찰서는 “최근 아동 안전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아동안전지킴이 한승환씨에게 아동안전시민상(전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안전시민상’은 아동 안전 활동과 관련된 우수 사례에 대해 경찰청이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씨는 신발을 잃어버린 채 맨발로 배회하던 학생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직접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주는 등 적극적인 아동 보호 활동을 펼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승환씨는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사계절 내내 아이들



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역할을 다해주시는 아동안전지킴이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포상이 지킴이들에게 자부심과 동기 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노형록기자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골목경제 활성화 동참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새빛콜-이화센터)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7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말바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지원한데 이어 9일에

는 북구 오치동 골목형 상점가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해 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청취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탤다.

황현택 원장은 “우리의 작은 참여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전남자치경찰위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운영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자치경찰 안전대학 운영에 나섰다.

13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 도양읍 주민자치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프로그램을 진행, 보이스피싱 예방과 같은 주민 실생활에 유익한 안전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민 안전의식



제고 교육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연말까지 시·군·주민자치회원, 치안협력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20여회 안전교육을 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